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 개정

### 정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인한 지역 지원 위해, 지정 신청 절차 진행... 3월 말 최종 지정될 듯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 경제 침체위기에 놓인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며, 송하진 지사의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당초 지정기준이 고용·산업위기상황 발생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에 미달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통해 군산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 개

정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산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고시 개정으로 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군산시에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고용부 심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에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 마련으로 군산 지역경제 위기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함께,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정책 반영, 전북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과 함께 해요" 7일 하이틴로 전주공장이 그동안 제기했던 공장 매각설을 일소하고 설비라인 증설과 추가투자 및 고용창출 방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전주공장을 찾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순병중 공장장을 안아주고 있다.

## 한국GM 군산공장 퇴직자 자녀 교육복지 혜택 마련

###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사진) 의원은 7일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 퇴직자 200여 명의 자녀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GM군산공장까지 폐쇄 예정인 상황에 퇴직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이 우선이라는 목적에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물이다.

이에 퇴직근로자 자녀들은 수업료와 교복비, 현장체습비,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면제받게 된다.

특히,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에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선포와 상관없이 실업자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퇴직자 등의 자녀들도 수업료(방과후학교 포함)와 교복비, 현장체습비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요청해 지원해주시길 잠정합의 했다.

이울러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되면 모든 군산시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이는 최인정 의원과 도교육청이 지난 한달여 간 긴밀한 정책회의와 간담회 등으로 이끌어 낸 결과물로, 도교육청은 우선 퇴직 근로자 자녀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뿐만 아니라

## “전북도민 권익보호에 앞장”

### 김정호 신임 전북 이·통장연합회장 포부

앞으로 2년간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이끌 협의회장으로 김정호 씨(61, 정읍시 협의회장)가 선출됐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이장·통장 협의회는 7일 전라북도 영산회관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전북도 이장·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과 향후 협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모든 회원들은 도민 화합과 소통에 앞장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사태와 도정현안 등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장·통장들의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등을 차질없이 구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정호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도 이장·통장들의 대표로 선출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도정과 지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전라북도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황선관(부안군), 양대석(익산시)씨가 부회장에 선출되는 등 협의회장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전북도이장·통장 협의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선출됐다. /김진성 기자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전북선관위, 800만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임후보에 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는 기초단체장 임후보에 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임후보에 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지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의회 복환위, 전주사랑의집 등서 현장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7일 전주사랑의집, 대상저수지 등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덕진구 소재 전주사랑의집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요기능 및 사업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위원회는 대상배수지를 방문하여 수돗물 생산공정 및 시설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에게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수질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당부했다.

양영환 위원장은 “민간위탁사업운영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 위탁사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위탁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헌법전문특위, 문 대통령에게 개헌전문안 13일 보고

국민헌법전문특위위원회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전문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헌법전문특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분부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요강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헌법전문특위는 전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최종의결을 거친 뒤 이튿날인 13일 개헌 전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전문특위는 헌법개정요강(안) 마련을 위해 분과위원회 총 17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2일에는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를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송용호(1978. 2. 1.생 2017. 12. 2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장인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년 단34 상속한정승인 판사 장인해  
▶ 피상속인: 망 송용호(1978. 2. 1.생 2017. 12. 21.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1 103동 201호(명화동 2가 미송평화하이즌)  
▶ 공고인: 송인섭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1. 9.  
▶ 공고기간: 2018. 3. 8. ~ 2018. 5. 7.  
▶ 주소: (청구 대리인 최인성의 주소)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2 동송빌딩 102호 010-2691-0770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